

강진 귀농프로그램 도시민 유입 ‘효과’… 정착률 70%

9개월 간 교육 이수자 지역서 새로운 여정 시작
먼저 살아보고 뿌리내리는 체류형귀농사관학교

강진군이 도시민의 지역 정착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귀농프로그램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7일 강진군에 따르면 체류형귀농사관학교 7기 교육생들이 9개월간의 체류·교육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최근 수료식을 가졌다.

7기 교육은 올해 3월 입교식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육생들이 농업기술을 배우고 농촌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강진에서 생활하는 체류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교육이 진행된 강진군체류형귀농사관학교는 2019년 폐교를 리모델링해 조성된 시설로, 도시민이 일정 기간 머무르며 농업과 농촌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군의 대표 귀농 지원 프로그램이다.

올해 총 10세대가 참여했으며, 교육 중

로 시점에 7세대가 강진군에 정착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주거 마련, 농지 확보, 일자리 연계 등 실질적인 기반 구축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체계적 프로그램의 성과로 평가된다.

교육생들은 영농기초 및 작목 실습 교육부터 마을 정서 이해를 위한 융화 프로그램, 지역 주민과의 교류 활동, 선도농가 현장견학까지 다양한 교육을 이수했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한 기술 교육이 아니라, 농촌 사회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올해는 농지·주택 구입, 부부·가족 단위 전입, 지역 내 취업 등 구체적인 정착 사례가 두드러졌다. 이는 귀농을 꿈꾸는 도시민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인 ‘정착 기 반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결과로, 군 의 체류형 모델이 현실적인 도움을 제공하



체류형귀농사관학교 7기 교육생들이 9개월간의 체류·교육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최근 수료식을 가졌다.

고 있음을 보여준다.

군은 교육기간 동안 농업 외에도 지역 일자리 탐색을 지원하기 위해 취·창업 상담을 병행하고, 귀촌 생활에 필요한 주거·생활 정보도 함께 안내했다.

이러한 다각적 지원은 귀농뿐 아니라 귀

촌을 희망하는 참여자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

지난해 6기 과정에서는 11세대 중 9세대가 강진군에 정착하며 높은 성과를 기록했다.

올해 역시 70%의 정착률을 보이며 체류

형귀농사관학교가 강진군의 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 증진에 기여하는 주요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강진원 군수는 “9개월간의 교육을 마치고 강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수료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정착

과정에서 배운 영농기술이 현장에서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공동체와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군에서도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강진=이진목 기자 sa4332252@

완도, 전남 농수산물 식품 수출 평가 ‘우수상’

2016년부터 장보고 상단 운영…해외시장 개척 고평가

완도군은 최근 무안군에서 열린 ‘2025년 전남 농수산물식품 수출 우수 시·군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평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농수산물식품 수출 실적과 수출액 증가율을 기준으로 1차 정량 평가 후 주요 수출 지원 정책과 해외시장 개척 노력 등 2차 정성 평가로 진행됐다.

완도군은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 활동을 높이 평가 받았다.

지난 2016년부터 장보고 상단을 운영

해왔으며, 올해는 해외 판촉전 7회와 수출 상담회 2회 개최, 국제 식품 전시회 3회 참가 등을 통해 완도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힘써왔다.

신우철 군수는 “군과 수출 업체의 노력 덕분에 완도 수산물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며 “내년 5월에는 국제해조류 박람회에 세계 각국의 바이어들을 초청해 수출 상담회를 여는 등 완도 특산물의 수출길을 넓혀나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완도=김해국 기자 knk1831@



완도군은 최근 ‘2025년 전남 농수산물식품 수출 우수 시·군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영암물, 올해 매출 전년 대비 300% 늘었다

10월까지 54억 기록…전략형 할인전·로코노미 등 주효

영암군의 농특산물 판매 플랫폼 ‘영암물’이 전년 대비 300% 넘는 매출 신장을 이뤘다.

7일 영암군에 따르면 지난해 17억원의 매출을 올리던 영암물이 올해 10월 말 기준 54억원의 매출을 기록해 올해 초 목표로 삼았던 50억원을 훌쩍 넘겼다.

군은 이런 성과의 요인으로 온라인 영암물 가입자 증가, 영암물 규모 확대, 전략형 할인전, 로코노미 마케팅 등을 꼽고 있다.

먼저 군은 온라인 농특산물 판매 사이트인 영암물 가입자를 7000명에서 3만2000명 수준으로 크게 늘렸다.

올해 광주 2회, 서울 1회 운영한 도·농 상생 직거래장터 등에서 다수의 신규 가입자를 확보한 다음, 광고 메시지 발송, 기획전 안내 등 공격적 판촉 활동

으로 온라인 영암물 구매율과 재구매율을 높였다.

온라인 영암물 규모도 지난해 보다 키워 임점업체는 40곳 증가한 130개로, 임점품목은 216개 늘어난 426개로 확대됐다.

군의 이런 노력에 소비자들도 호응해 구매 후기 98% 이상이 긍정 평가 댓글을 남기는 등 영암 농특산물에 신뢰를 보였다.

군은 전략형 할인전 기획·실행으로 영암물 매출 상승, 고객 재방문 등을 이끌어냈다.

이승준 군 농축산유통과장은 “영암물의 성과는 지역 농가와 소비자의 신뢰가 함께 성장한 결과고, 현장에서 세밀하게 기획한 마케팅 전략과 예산 운용 노력이 만들어낸 성과다”며 “마케팅 전문성을 바탕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혜택을 체험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

해남, 아르바이트 대학생 모집 희당 137명 10일씩 2회 운영

해남군은 겨울방학을 맞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함께 아르바이트 참여자를 모집한다.

특히 이번 아르바이트는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20일 동안 1회 운영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근무기간을 10일씩 2회로 운영하게 된다. 이에 따라 참가자도 최대 274명까지 늘어났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부모 또는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남군에 있는 2년제 대학 이상 재학생으로 신청기간은 오는 10일까지이다. 군 실과소(관광지 포함)의 경우 해남군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을, 읍면사무소(지역아동센터 포함)의 경우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군 실과소(관광지 포함) 희망자는 22일 오후 2시 해남군청 대회의실에서 대면추첨을 통해 선발한다.

읍면사무소 희망자는 읍면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결과는 26일 군 홈페이지와 개별 문자를 통해 공개한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

37년 기술력,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및 특수벨트 가공전문

오양물산

오양물산주식회사

O-YANG PRODUCT CO., LTD.

· 본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아로 534-26(장덕동) · 제2공장 : 광주시 광산구 하남산단2번로 125(하남동)
 · Tel : 062)953-0006 · Fax : 062)955-0030 · URL : http://www.oyangms.com